

내가 본 2004, '처음과 끝'

# 경주에서의 10년 정주, 고통 깨닫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땅



글 | 강석경 (소설가)

올해에 장편소설 《미불<sup>미佛</sup>》과 산문집 《경주산책》을 펴냈다. 소설은 작년 한 해 동안 기간지에 연재한 것이고 산문집은 그동안 여러 매체에 경주에 관해 쓴 칼럼만 모은 것이다. 두 권 다 지난 시간들의 작은 결산이지만 경주에서의 결실이요, 작가로서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.

《미불》은 한 노화가의 예술과 정념을 다룬 소설이다. 초고를 20매 정도 써놓고 십 년도 넘게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'예술과 고통'의 관계라는 나의 화두가 홀연히 풀리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. 주인공 '미불'은 칠순에 뒤늦게 인도로 가 그가 갈구하는 색채를 되찾고 인도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예술세계를 꽃피우는데, 귀국한 뒤 한국의 원형 같은 설화가 묻힌 경주를 화폭에 담는다. 노화가에게 영감을 준 인도와 경주는 내게 깨달음을 준 정신의 땅인데, 1989년도의 첫 인도여행 이후 인도는 늘 내 무의식에 깃들여 있다.

갠지스강의 화장터에서 맞닥뜨린 죽음들, 강에 떠다니던 태우다 만 시신, 삶과 죽음이 함께 흘러가는 풍경들, 죽음이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이 충격이었다. 나는 비로소 삶의 본질과 대면한 듯 했고, 한 조각 천을 걸친 수행자나 웃는 거지들을 보면 모두가 거머쥐려는 부활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. 부도 본질이 아니었다.

기차에서 동냥하던 여장 남자를 가리키며 남자가 아닌가 묻는 내게 "남자 여자란 건 없다"라고 고개를 내젓던 평범한 인도 청년. 그의 말이 맞았다. 모두가 인간일 뿐. 강가에 울려 퍼지던 힌두교인들의 만트라, 그 영원을 향한 노래도 잊혀지지 않는다.

인도는 내게 본질을 가르쳐주었다. 인도에서 돌아와 경주에 터를 잡은 것은 근원으로의 회귀였다. 도심 한가운데 둔덕처럼 솟은 천년 고분은 자연으로의 회귀이며 삶의 순환을 보여주는 듯했다. 이 땅에서 늘 이방인 의식으로 부유했던 나는 경주에서야 비로소 정주

할 수 있었고, 경주가 배경이 된 장편소설 《내 안의 깊은 계단》, 역사 산문집 《능으로 가는 길》 등을 펴내며 산천도 변한다는 십 년이란 시간을 충족하며 보냈다.

경주생활 십 년을 마무리하듯 《경주산책》을 준비하고, 올 가을엔 인도에 있는 어느 공동체에 다녀왔다. 한 인도 철학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창시된 이 공동체에 준회원으로 거주해 볼 생각을 갖고 있었다. 이곳의 회원이 되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고 자족하며 살고 있는 후배를 만나고부터 이 미지의 작은 사회를 꿈꾸었다. 내 의식을 열리게 한 인도 땅에 오두막을 마련하고 작가로서의 말년을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.

상상과 현실은 달랐다. 우선 그곳은 인도가 아니었다. 땅은 인도로되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 한 포기조차 허허벌판에 심으면서 서양인들이 이루어놓은 자연이요, 개척촌이었다. 인도를 여행할 때 내게 깨달음을 준 것도 감명을 준 것도 자연이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자연과 교감하지 못했고, 동질감도 가질 수 없었다. 공동체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가까운 도시로 가다가 야지수를 보고야 "아, 인도구나!" 하고 미소지었고 인도 순례자들이 식사하는 작은 도시의 아슈람 식당에서 오히려 신성함을 느꼈다.

세상에 유토피이란 없다. 갈 때부터 이런 주제로 소설을 구상할 생각까지 했지만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미련 없이 돌아왔다.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세상을 잊고 휴식하듯 존재할 낙원이 아니라 고통이 있더라도 끝없이 깨닫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땅이었다. 나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과 대면할 작가일 수밖에 없고, 2004년이 저물어가는 시월 말 인도 첸나이 공항을 떠나면서 다시 깨달았다. ■■